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인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행16:3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충현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2000 메시아 연합찬양, 이번 주 금요일집회(22일)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송축할 순례의 시간을 향하여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눅 2:28-32)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갈릴절과 성탄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세주의 탄생과 그의 오심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메시아 오실 예언'이라는 주제로 드리게 된다. 제2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주제로 구세주의 고난을 다루게 되는데, 바하의 성 마태 수난곡과는 차원이 다른 목상들이며 최후를 노래하는 수난을 보여준다. 특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드리게 되는 제3부에서 마지막 합창 할렐루야는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고 것으로 부활로 시작하여 이 부활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는 대의사를 찬양하며 온 인류가 화합하는 아멘으로 끝난다.

이번 연주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400여명의 찬양가와 60여명의 오케스트라가 작곡마다 모여서 연습에 몰두해 왔었다. 이번에도 드리지 될 메시아 연주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시므온처럼 주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에 넘쳐나는 심령으로 변화되도록 소망함으로 기도하자.

일꾼 임명식 주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7,38).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일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이라"

게 하려 하심이라"(로 15:16).

이번 주일 4부 예배 후에 있게 될 일꾼 임명식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닦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기대한다. 일꾼들의 자격은 성경은 오직 하나이다. 성경의 교훈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에게서 배부시는 권능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위에 충만하도록 다짐해 기도하자.

내년부터 주일에 행해지는 취사 금지 (12월은 유예 기간) 위원장협의회 및 당회 결의

2001년부터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 이곳 저곳에서 벌어진 취사로 인하여 성도간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 먹는 문제는 교회에서도 성도간에 편당을 만들었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실시했던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엄중한 질책을 했고, 속히 고칠 것을 권면하였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라, 너희 중에 분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사창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신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니라!" (고전 11:18-22).

치한 곳에서 교회를 섬기다보면 배고픔과 시장기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국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취사 금지에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한편, 교회의 일꾼들이 봉사를 위해서 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러한 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

연말연시에 행해지는 교회안의 모임에 대한 소고 의미 있는 교구협의회

이번 교구에서 마지막 교구협의회 때, 한문도 없이 각 전도회총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예년의 경우에는 많은 잔액이 남아서 총회 때 사용할 금액을 설명하곤 했었는데, 이번 협의회 때에는 전도회 결산서의 잔액이 0원, 3168원, 240원, 6332원 등의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총회 때 사용해야 할 금액이 전혀 없어서 전도회라도 했지만, 전체의 분위기는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한달 전에 교구 전도회연합회에서 각 전도회의 총회시에 제공하는 선물을 없애고, 모든 비용을 회계단으로 줄이며, 모든 이월금과 금년도 밀린 회비들을 거기에 강구주님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기쁜 실천으로, 구경을 통해서 105 가정을 추천 받아서 쌀 20kg 1포와 라면, 그리고 담근 김장 김치를 막스에 포장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한달 여 기간동안 김장을 담고 집마다 방문하여 배달하는 일에 모든 전도회원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정을 지출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람이 없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행한 이 일이 시원함과 참한 찬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 교구는 금년도 전도회 총회를 한 문없이 치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에게 주신 풍성한 마음만큼이나 풍성하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총회가 되길 기대하고 기도하자.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는 한 해의 수고와 새로운 다짐을 위해 많은 모임을 가져게 된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모임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가 있는 보람된 목적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이 되길 기대하자.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특별제직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급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30	기독교교육 (강인석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당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당 (이종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2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역 찬양대, 본당)	유아 세례식 (오호 3차, 갈릴리움)			

신약 읽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저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자는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악인의 조종을 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분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양들의 생명을 해치는 이리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 악인들은 물론 그 열매가 할지 몰라도 그들의 열매는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은 양들을 쫓은 말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하는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 심판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분별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처벌준 목사·선교위원회 지도)

Greatest Discovery

(Ephesians 3:1-7)

"In reading this, then,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insight into the mystery of Christ."

Paul was a happy man! Even though he was imprisoned in Rome, under the terrible persecution of King Nero, he was able to rejoice. How is it possible for such a man to be so joyfully content? There's only one answer: he found the greatest discovery! He found faith in Jesus Christ! No one, no matter how accomplished an actor, can show true delight in such dire circumstances without having found the greatest discovery. Look around you and see the kind of people that despair in hardship and the kind of people that have delightful peace in spite of it. I'd venture to say that everyone you find with gladness in their hearts, in the midst of suffering, will be a Christian. Look at Paul, he was a Jewish man who was hated by most Jews, for that matter, most Romans hated him too. He had a lot of different people who wanted to kill him. He was jailed because of their hate. Nonetheless, Paul was one of the happiest men on the face of this earth. Why? Because he was given a great privilege. He was imprisoned because of Jesus Christ. He suffered for the sake of God's grace.

Paul definitely had two different addresses, one for the jail and one for heaven! Normal people saw him as a prisoner of Rome, but Paul said that he was a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this reason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He never thought of himself as a prisoner of Nero's, only a prisoner of Jesus Christ. Even though he was jailed, he never expressed sorrow or distress. He looked at his situation as a privilege! How about you my friend? When you face suffering for Jesus Christ, when you get insulted because of Jesus Christ, when you lose money because of Jesus Christ, at that time, are you thinking you are a prisoner of Jesus Christ? Are you thinking you are a winner, like you have victory?

From today's Bible verses, Paul tells us that he discovered the greatest thing, the revelation of God, the secret of God! The secret of love, mercy, and grace was transferred into his heart by God.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 was given to him by God.

Jesus came to Paul and changed him from a sinner to a minister of God's Word. Jesus not only came to Him, but sent Him into the Gentile land to share God's secret. Now, all humans can be forgiven of sin and become God's children.

*From today's Bible verses,
Paul tells us that he discovered the greatest thing,
the revelation of God, the secret of God!
The secret of love, mercy, and grace
was transferred into his heart by God.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
was given to him by God. When Paul met
Jesus Christ in Damascus, he experienced the
wonders of God's secret. He was called
to proclaim that secret to Gentiles,
not Jews (see Gal. 2:7). He shined
Jesus Christ's light into the darkness of the
Gentile's place.*

When Paul met Jesus Christ in Damascus, he experienced the wonders of God's secret. He was called to proclaim that secret to Gentiles, not Jews (see Gal. 2:7). He shined Jesus Christ's light into the darkness of the Gentile's place. From where the power of Satan thrived, Paul brought in the power of God. The Gentile's place changed dramatically to a place of forgiveness and holiness. It became sanctified by trust in Jesus Christ. Look at Acts 26:18,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dominion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 by faith in Me." Amen!

Before Jesus, Gentiles hardly existed in front of God. The Greeks, the popular Gentile nation, were so proud of themselves that they thought all other people were stupid. The Jewish people also took great pride in themselves, and thought all Gentiles were stupid. But under the cross everybody is equal, both Jew and Gentile. This is what Paul discovered in Christ, "that the Gentiles are fellow heirs and fellow members of the body, and fellow partakers of the promise in Christ Jesus through the gospel." Before Jesus, Paul thought only the Jews would rule, "For the nation and the kingdom which will not serve you will perish. And the nations will be utterly ruined" (Isa. 60:12). After

Jesus, Paul understood that only Israel's God was God, and He was available to all people who believed in Christ (see Isa. 45:14).

Every nation has its wall of pride. They think they are better than other nations. All nations have their own world vision, and their vision is the right vision in comparison to anyone else's. Actually, the nations of this world are in a cultural prison, confin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oral law. None really thinks that God's special grace is for everyone, every nation, every soul. Paul found this great discovery. That's why he boasted,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 Gentiles" (v. 1). Paul wrote boldly on some points to remind us of the grace which was given to him from God (see Rom. 15:15). Without Paul, these wonderful words could not expand. Right now, without Jesus, without Christians, these words cannot spread to the ends of the earth.

Paul received a revelation, "that by revelation there was made known to me the mystery", a universal revelation which is God's grace. God showed to him this truth and beauty. Paul experienced its awesome power. That's why he proclaimed this gospel. Amen! He became an agent of God. He had to do some very hard, dirty, and dangerous work. Without Jesus, he would have been a very, very sad person. With Jesus, he was able to be a very, very happy person. He look at his work as the best kind of work. He taught and preached God's grace under some of the most trying circumstances. He joined Christ's suffering in all kinds of service to God's kingdom. He never thought it was easy. He knew that this way involved many hardships, but he also knew that all the hardships he encountered, all the suffering he faced was a privilege in Christ.

Tomorrow is Christmas Day, and today is Christmas Eve, my dear friends, what have you found to be the greatest thing in this world? I hope you, like Paul, have found the greatest discovery. Amen! 🙏



김성록 목사

위대한 발견

(엡 3:1-7)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바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네로 황제의 끔찍한 박해로 인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없이, 아무런 연가력이 뛰어난 배우라 할지라도, 매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로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평강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 다. 물론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미움을 받았습니 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 말한 모든 자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 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투옥되었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 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었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혔던 바울

바울은 확실히 두 개의 다른 자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감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죄수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코 네로의 죄수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의 포로로 생

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투옥되었지만, 그는 결코 슬픔이나 고뇌를 표현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직면하고, 모욕을 당하며, 재물을 손해보게 되는 그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승리를 얻은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계시가 하나님에 의해 그의 마음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비밀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었습니다(갈 2:7). 결국 바울은 이방 세계의 영적인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을 마귀의 세력이 가득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방의 세계는 드라마틱하게 용서와 기복한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신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궤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람과 나를 면히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번에는 바울에게 오셨고, 그는 죄인의 신분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이 단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 세계에 나누어주기 위해 그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바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 다. 인기 있는 이방 민족인 헬라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매우 교만했는데,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은 어리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대 백성 또한 그들 스스로 카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엡 3:6).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울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전멸되리라”(사 60:12)는 이시아의 예언을 통해, 오직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사 45:14)

예수의 일을 자랑했던 바울

모든 민족마다 자존심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은 나름대로의 세계 비전이 있고, 그들의 비전은 그밖의 어떤 다른 민족의 비전과 비교할 때 독자적인 비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계의 민족들은 문화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도덕에 의해 부여되는 주제와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미움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랑하는 이유입니다(1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 어떤 요점을 대담하게 기록하였습니다(롬 15:15을 보십시오). 바울이 없었으면, 이처럼 놀라운 말씀은 확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즉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웠던 바울

바울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비밀을 알게 하신” 계시이며(엡 3:3), 보편적인 계시로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리와 아름 다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계시에 의한 경이로운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이유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매우 어렵고, 수직스럽고, 위협스러운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그는 아주 비극적이거나 슬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고로 훌륭한 사역으로 여겼습니 다. 그는 어떤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쳤습니 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들지면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수고와 심검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그대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많은 곤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어려움들과 부딪혀 싸웠으며, 그가 직면했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종의 특권이었음을 느꼈습니 다.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성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해 소망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처럼,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간다 사역을 마치고

단기평신도선교사 이순주



1년 동안의 '우간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보고드립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토양이 기름진 나라입니다.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바나나 나무와 한국에도 있는 고구마, 감자, 콩 등 여러 가지 곡식들이 많이 자랍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처럼 이들도 땀이 엄청나게 큰 소를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소를 7마리 이상 주어야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인이 한 명이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발병도 많지요. 우간다는 영국의 영향으로 성공회가 주로 있었지만 지금은 힌두교·천주교·불교·이슬람·제칠 안식일과 각종 미션들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강하게 있는 종교는 모슬렘으로 북쪽에서부터 강력한 물결공세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빅토리아에는 풍부한 어족도 있는 반면에 오염

으로 인해 질병도 많이 발생합니다. 약간 먹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 고봉 중에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는 우리나라의 소백산 높이(1,300m)와 비슷한 높이이고 불과 맑은 서늘하며 한낮에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곳 현지인들은 주식으로 뽕소(옥수수) 가루를 삶은 것인데 우리나라의 백설기와 모양이 흡사합니다)와 빙(강낭콩과 비슷한), 마파게(삶은 바나나)를 주로 먹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RTC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신학과의 외곽에 있습니다. 신학과, 음악과, 유아교육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은 150명 가량 됩니다. 입급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신학교의 교수, 행정, 선교사 자녀 학교의 일로 사역을 합니다. RTC 학생들은 우간다 근처의 케냐와 수단, 르완다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며 학비 없이는 공부하고 학비 대신 일을 하는 등 열의와 헌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 RTC 도서관 사서 작업과 신학교의 행정, 거리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웃 학장들 중에 토요일이면 거리전도를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전 이들과 함께 거리빈민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전이었던 저녁이면 트럭에 밥과 빙 소스를 실은 뒤 다같이 모여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고 캄팔라의 외곽 거리의 빈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트럭 뒤에 타고 포장이 안된 길을 가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만 이곳의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은 계속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심한 문둥병자를 보고 거부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다행히 그들의 정령이 보이게 되면서 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뒤에 음식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제서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에이즈로 혹은 말라리아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오갈데 없

어 밤에 구걸을 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아이들이 물러가게 되는데, 한결같이 손을 얹어 대고 있고 또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물병을 입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바로 본드를 입에 대고 하루종일 이렇게 환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뱀이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다고 합니다. 마을 한 구석에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거리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길 또한 찬양이 넘쳐 흘러납니다. 때론 영으로 우간다어로, 서투른 한국어로 서로가 하나되어 찬양하며 오는 깊은 정발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기도하 마친 후 서로 "Good night!" 포옹을 하며 각자의 잠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거리 빈민전도를 나가게 되면 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포옹해 오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들과 또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그리고 RTC의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며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기도회 및 겨울단기선교 전체모임

가. 일시: 12월21일(목) 오후6시~9시
나. 장소: 만나홀, 배너타운, 매추라기홀
다. 대상: 선교위원, 선교회원 및
겨울 단기선교 참가자 전원

나 혼자 전구할 수 없잖아요

소중한 만남

이경자 (집사, 7교구)



1994년 가을, 저의 남편은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남편은 2년만에 입원해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 큰 딸이신 김순희 씨의 남편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던 병실이 제 남편을 찾아온 방문객들로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입원에 있던 김순희 씨 부부와는 자연히 간섭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가 오가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면 열에 있는 부부에 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에

누워 계시는 아주머니 남편의 병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칠 수 있어요." 제 남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그때만은 나를 도와 같이 김순희 씨를 전도했습니다. 의외로 김순희 씨의 쉽게 마음을 열고 회교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김순희 씨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귀환의 직분도 받았고 그녀의 남편 김영경 성도님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순간에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지 않던 남편조차도 자를 도와 전도하게 한 것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남편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 결결 웃으며 기뻐합니다. 한 영이 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도에서 온 편지

영의 어머니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썩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같이"(사 55:10).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해 주님의 성령을 찬양해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저의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할지라도 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이길 간절히 바라옵나니. 영의 어머니! 지난 4년 동안 나는 이 지인의 눈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4년 지난 후의 지금 나의 눈은 사랑

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니다가는 어머니! 그리스의 변치않은 사랑 가지고 오심에 당신을 마중하러 나가기 전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맞아 말씀으로 또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행함을 보아온 저이인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본을 받아 동료들에게 덕을 끼치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을 실천할 때 더욱 바라는 것을 보아온 저이인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본을 받아 동료들에게 덕을 끼치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을 실천할 때 더욱 바라는 것을 보아온 저이인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종, 영의 어머니의 교정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신 모습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흘러지는 땅방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어머니께 인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의 아들 다정하옵시니 더 부단히 노력하여 귀한 열매를 맺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다름 없는 날까지 기도와 사랑을 다스리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기도도 영의 어머니께 문안드립니다. 아멘.

천주에서 믿음의 어머니의 어머니께 올립니다.



◀ 그것은 필자가전국 제소사 미술대회에서 특선한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만남’

이영아 (청년1부, 74동기)



‘밀알의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맹인 연인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손짓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농아인 구들, 자신의 손으로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자신의 발로 걷지 못해 자신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졌지만 뜻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감사찬양 드리는 지체 장애인들, 어눌한 말소리로 걸진만 가진 모든 것으로 춤추며 주님께 찬양하는 너무도 맑고 예쁜 정신 지체인 친구들, 이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어찌든 내일이 아니라기에 귀찮아 할 수 있지만 끼어들어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인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과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장애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달라는 맹인 형제들의 말... 우리 교회의 사랑과 애마다부, 사랑하는 대학부 아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제게 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의 이기적이고 연약함으로 제대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만남들, 그러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예비해 놓으신 만남들에 저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 복음 12:24).

♣ 만평

글·그림/김범현



누구나 큰자 되기 원하고, 돈 벌기 원하고, 예수는 경책노리를 따르지 않았지, 아픈 약을 남겨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갔지, 나는 그림자를 쫓았을지.

예수는 사람을 거역지 않았지, 무식한 여파들을 불러다지 동행했지, 천사와 악인들과 함께 사흘을 썼지, 재지들 땀도 맺고 주었지.

나는 성전근자가 아니라 내 머리를 가린채 오만한 교인이 왜 악인들 내 마음을 괴롭히 감동하게 하는지, 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를 닮으려 노력하니 하는지.

왜 범인인 오늘도 예수처럼 못 살았나 고민하고 울면서 내일이 시작된다 다 잊었지, 야만인이라도 예수 닮기 위하여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당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창11:31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에서 거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까지만 간 것은 그들의 씨족과 동일 문화권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치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씨족과 동일 문화권을 벗어나면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1-2).

사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들지 못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고, 자신의 부인 사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래를 취할까 하여 사래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킴이 것에 대해서 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됩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어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래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여기서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게 됩니다. 하나님께 애굽 왕을 처서서 그 죄에 큰 재앙이 있게 합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사래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일어난 재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애굽 왕 바로는 뼈저리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애굽은 문명적으로 따지면 문명이 있었고,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였지만, 애굽 왕의 권력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래와 함께 보내면서 모든 소유물을 함께하여 애굽에서 보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기 시

작합니다. 뜻이 외형적으로 좋은 소들을 향해서 갈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헤브론 마르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신앙을 보여줍니다(창 13:18). 근동도 내 왕이 소들을 치고 고을을 사로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자신의 가진 삼백십팔필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그들을 처서 파하고 못과 매웠지만 세물과 부녀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양으로 돌립니다.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창 14:18-20). 예전의 아브라함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게 알아갈 때 늘어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며 별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이지기를 막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래를 사러오 바꾸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약속을 인정을 할 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도록 명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높은 경외감과 함께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는 것과 강한 신기나 믿음의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러한 이유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믿어지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모습은 저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죄에 확증하였습니다. 때문에 언약하심만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요 믿음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청년1부 회원 중역서)

인도자의 편지

예비된 영혼구원

정 귀옥 (집사, 1교구)



유위숙 성도! 지금쯤은 성도라는 말이 익숙해졌지요? 유위숙 성도를 전도

한 때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오래 전 강우남 성도를 전도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아시아에서 강우남씨는 책을 팔고 있지요. 우리 막내딸이 일어 강사를 하다가 강우남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강우남씨를 전도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하신다는 강우남씨를 통하여 유위숙이라는 귀한 영혼을 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혼을 회한하지요. 강우남씨에게 찾아갈 때 웬지 4영리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확신 하건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위숙씨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너무도 잘 받아들이는 유위숙씨는 분명 하나님께로 예비해 주신 영혼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유위숙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이 안 믿는 집이니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2살 난 상훈이

를 데리고 임신까지 해서도 열심히 새 가족부에서 성경공부하며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유위숙씨는 축복 받은 영혼입니다. 부디 12월에 순산하길 바라고 그 아이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닌지 8년 가까이 되었어도 별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더 젊을 때 못 믿었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더 젊어서 믿었다면 많은 일을 했을 텐데...하구요. 유위숙씨는 젊어서 믿을 수 있으니 축복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오직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었지요. 기도하다 보니 말씀 증거하고픈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 어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사귀게해서 그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전도하고픈 큰 일을 하시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끝없는 사랑

한 회승 (12교구)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를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몸 장애가 몹시 큰 몸입니다. 인도대교구에 선교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갈 정도입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 12교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 12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더욱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부족한 저에게 2년동안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은혜 권사님과 김영희 집사님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 아내 김희도에게 감사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성직 약해져 있습니다. 사는 날동안 오직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 에마다바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마다바바 예배를 드릴 때면 행복합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 양오실

5교구 고길중 성도 일단 퇴원했습니다. 원래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 필요했습니다. 김재수 집사 양 함양으로 집에서 요양하다가 다시 감남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호 성도 간 경화로 치료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정범용 성도 아직 골수가 맞는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8교구 김용선 성도 간 말기 환자로 치료사 미국에 갔다가 상태가 악화 되었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공향호 권사 시신경 염증 때문에 현재 한쪽 눈이 실명인 상태 다른 한쪽으로 전이가 되어 위험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9교구 신근민 학생 골유종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영제와 자매의 아픔을 보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원로·은퇴·장기근속자

(원로)

권사	1444	김옥래	560	장기국	586	정운수
112	최경복					

(은퇴)

인수집사	79-251	마숙현	980	주영호		
권사	3472	공희복	80-259	김금순	3674	김달선
1887	김복래	83-137	김분식	2702	김진희	
86-610	김영애	60	김희자	81-781	나신애	
1692	남은주	105	민희숙	818	박영신	
820	서양숙	870	오연희	2271	윤화숙	
371	이남수	159	이창덕	79-336	이연순	
2258	이인경	2999	조희순	636	진희복	
80-652	최현숙	4547	이희자	1715	필기복	
324	한정숙	1941	한은순			

사리집사

741	김현순	909	김은주	1958	변영혜	
1256	서기원	88-858	서영숙	2668	송경수	
5049	신병권	2190	양창식	4785	유연길	
2463	이덕노	3567	이상태	633	임용광	
82-670	정현익	92-510	정현식	1395	한경선	
81-235	한화숙	96-730	고한희	2288	권영자	
90-236	권순조	83-249	김정복	92-1666	김정혜	
92-158	김정환	94-56	김영민	94-633	나유순	
95-1446	박복남	81-768	박은순	5223	박순애	
91-1203	최현복	92-1040	이병선	84-219	이순애	
91-302	이영자	91-716	이유순	90-634	이영자	
80-701	장상진	88-328	정운숙	96-1032	최병연	
90-853	홍순자	86-577	황영숙			

(장기근속)

30년

사리집사	4991	김두원				
------	------	-----	--	--	--	--

25년

사리집사	3719	김민석	2801	장석환	1971	정상주
3464	임경자					

20년

장로	559	오진국	603	이병화		
권사	909	김영숙	2460	김진란	60	김희자
2555	오연희	488	한영신	525	조귀남	
636	김연숙	324	한정숙			
사리집사	1230	고문진	4946	김달한	741	김연순
358	김재식	1855	김정희	1392	서기원	
3201	권은희	2560	이상길	4886	홍용기	
4104	정현익	4835	김영자	79-267	박경자	
2286	정영진	2635	정영자	3165	최희영	
3243	김영숙	5410	한경선	3883	홍문순	

15년

권사	1462	김금순	5048	김은자	1172	김희옥
228	박영길	1999	박영자	1256	박인애	
1025	신순덕	622	안숙경	79-35	염미숙	
880	송수연	79-330	이영희	1455	임신비	
4340	장정숙	167	전정숙	1809	최태희	
사리집사	1919	정영호	81-5	김영숙	80-719	김정숙
82-7	김유환	82-487	김일주	1386	김정진	
2375	김영진	80-104	김현민	81-846	부시내	
3578	김재식	80-123	박영자	79-352	박영자	
1256	서기원	82-711	송영선	82-21	송유주	
4875	신경호	82-600	이영자	4919	이병주	
81-385	이상용	3821	이성진	527	이영호	
83-605	장영진	80-623	정영진	80-19	조경혜	
3202	조영주	83-158	최희조	84-538	최현옥	
82-648	이현진	2134	장유희	81-999	구명숙	
81-48	김금순	4119	김영희	81-902	김상진	
82-563	김금순	2745	김금숙	80-28	김재순	
80-268	김희희	81-921	김금순	3065	김윤순	
82-230	박영희	4499	박복순	80-15	송운임	

4696	신영희	4115	신정숙	3199	심정혜
2819	오경남	4341	이금순	1345	이서복
5231	이상애	4813	이소규	81-506	임정숙
81-125	정민희	806	황화숙	84-34	정길래
4522	정진숙	85-65	조유숙	1980	지아연
798	지영순	82-212	최희자	84-169	차복순
4543	최순애	80-465	한혜원	83-330	최희관

10년

목사	90-1047	이홍성				
전도사	90-1046	최희혜	3191	김정자		
인수집사	3669	김영은	2333	박한림		
권사	3161	권은순	1905	김정순	81-781	나신애
247	방정숙	3005	박순옥	4681	변성숙	
125	유병삼	3375	유창순	1392	이영애	
559	이영자	4456	이재희	80-634	이영희	
325	이영자	80-810	이영자	2299	임정자	
4452	김정숙	579	정영희	1449	전성자	
80-99	정영숙	5329	최정숙	4547	최희영	
3200	한정숙	573	홍영자			

사리집사

86-470	김규태	611	남남식	80-72	김병림
89-615	김진희	84-740	김수연	89-87	김민애
2844	김영진	85-873	김진희	82-732	김민호
88-287	김종성	3447	김종환	89-1161	김종태
85-705	김영진	84-1284	박현홍	89-1160	남정숙
89-1201	김진희	84-204	최희조	87-437	박영희
85-653	박유자	1906	박만재	80-41	송숙자
80-385	신현길	85-243	김희조	86-325	오은도
84-199	송영자	9647	이기찬	87-682	이서복
89-230	이성복	3545	이정숙	88-320	김영자
88-989	이영남	89-582	이정주	82-41	이정길
89-1200	이흥식	89-1275	이진규	86-24	이영희
85-531	장성길	89-130	장숙자	88-1023	장영향
86-578	정대원	88-859	조유숙	89-1075	지정숙
89-1640	최복남	35	최숙진	4664	최홍식
87-91	권무순	81-235	한영호	4277	황신구
89-1206	황용숙	86-126	장진순	88-760	장홍희
86-178	고순덕	89-853	구수진	85-348	김영숙
85-465	김정숙	85-357	김남선	2372	김두원
85-411	김정희	87-329	김미란	1550	김봉선
85-640	김진희	89-416	송영자	87-268	김진숙
81-729	김은혜	85-552	김영미	86-140	김정숙
86-248	김정숙	88-855	김정희	3303	김유자
89-575	김유순	87-833	김진희	84-1137	김정숙
85-617	김진희	84-617	김진희	87-215	김희선
80-455	김진희	79-186	송영자	86-480	김희숙
84-576	남혜숙	84-1236	박영남	88-20	문민란
82-711	김진희	82-242	김진희	86-282	박영혜
86-449	박영숙	89-1275	나은순	84-256	박순자

82-128	박영숙	82-128	박영숙	82-527	변혜선
83-45	신민식	88-855	송영자	81-1004	신정숙
87-118	신민식	84-66	김정숙	86-616	한영자
46-01	양숙자	87-181	이영자	82-231	양영희
87-9	오세은	85-119	이영자	85-514	오은복
79-246	유영혜	754	유순원	87-407	유수숙
82-134	유순원	82-134	유순원	87-741	윤진자
83-511	유순원	88-558	송영자	86-539	윤미란
82-482	송영자	84-538	한영자	80-750	이영자
84-388	이영자	81-440	이서복	81-449	이영진
90-67	이미연	87-147	이영자	87-53	이영희
88-80	이영자	84-907	이영자	88-127	이영혜
85-33	이영희	2916	이영자	81-1002	이희숙
84-1189	이영자	82-613	정영자	3829	임정희
82-688	이영숙	82-580	김진희	4122	장계복
84-1288	정영자	86-306	김진희	84-394	정정진
86-584	정영자	87-59	정영자	88-10	정정희
87-660	정영자	89-753	정영자	85-113	조영희
84-1011	주영진	89-674	주영진	87-844	전순숙
86-383	송영자	88-154	신정숙	81-654	최희숙
81-434	최진숙	85-653	최희숙	84-966	최희희
88-119	최희숙	87-540	허두원	82-614	한정희

직임

89-1489	김정숙	90-927	이금환	85-348	김정자
90-762	정영자	90-930	조영숙	99-252	김기찬
91-270	오영희	90-385	김정숙	3199	신정혜
79-257	문숙향				

구분	시 간	창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산배, 회개와 동심회 예배)	본 당
	IV 오후 1:00(회개와 동심회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문과 찬양 예배)	본 당
English Service	9:00 ~ 10:00	강일교회(Gaile's Church)
찬양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 예배	1:00 ~ 11:00 또는 7:00	본 당
금요일 예배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후 5:00	본 당